

한마음 한몸

2014.06

통권 22호

한마음한몸
운동본부
One-Body One-Spirit

특집 생명존중과 소통의 문화를 만들레처럼 퍼트리는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COVER STORY



© OBOS

아프고 소외된 이들의 마음에 공감하며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다독이는 것.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 생명의 문화를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의 할 일입니다.

통권 22호 / 여름

한마음 한몸

발행인 유경춘

발행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발행일 2014년 6월

디자인 slowalk

주소변경 및 문의 | 후원관리팀

T 02 727 2288 E obos@catholic.or.kr

CONTENTS

테마스페셜

- 03 한마음 한몸으로 _ 나눔과 희생을 통한 평화로운 세상
- 04 SPECIAL STORY _ 생명은 하느님이 내게 맡겨 주신 것

아주 특별한 경험

- 10 현장을 가다 _ 캄보디아에서 온 사랑, 희망, 햇살, 기쁨
- 12 OBOS Family, 세계의 사람들 _ 가난했던 인생의 큰 전환점

희망과 만나다

- 14 희망공작소 _ 부룬디 희망 프로젝트
- 16 OBOS Hope Maker _ 세 남매의 생애주기별 기부

공감하는 세상

- 18 나눔가게·나눔기업 _ 황금부동산, 유진갑자탕
- 20 생애첫기부

NEWS +

- 22 OBOS NEWS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한마음한몸**은 후원자 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됩니다. **한마음한몸**의 내용은 인터넷(www.obos.or.kr)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있습니다.

Copyright © ONE BODY ONE SPIRIT. all rights reserved

나눔과 희생을 통한 평화로운 세상

† 찬미 예수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은 가톨릭 교회에서 예수성심월로 지정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뜨거운 태양처럼 예수님의 성심은 우리를 향해 비추고 계시는 듯합니다.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6.22)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26살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25주년에는 그 동안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자 ‘25주년사’를 발간했습니다. 사반세기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 한마음한몸운동을 통해서 본부가 추구해온 가치는 나눔과 희생을 통해 함께 더불어 사는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저희 운동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통해서 저를 비롯하여 본부의 모든 직원들은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가진 마음과 재능, 재화를 함께 나누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신다는 것에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이 지면을 통해서 함께 해 주시고 지혜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6년 전 저희 본부가 설립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체성사의 정신을 우리의 삶 안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헌혈과 장기기증, 헌미(헌금), 입양·결연 운동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본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하였고, 그에 따른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 발걸음은 신앙인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점차적으로 이웃 사랑의 실천 운동은 많은 이들에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고, 서로의 아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나눔과 희생, 봉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에 큰 힘이 되었지만 아직은 부족한 듯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본부가 추구하고자하는 인간(생명) 존엄성의 가치보다는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 식량, 교육, 환경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본부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저희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평화롭고 인간(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6주년을 맞이하는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 본부가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감히 청해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 공동체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



“길가에 핀 이름 없는 꽃 한 송이도
 생명을 이어가며
 당신에게 말을 건네고 있어요.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당신 곁에 우리가 있어요.”



생명은 하느님이 내게 맡겨 주신 것

생명존중과 소통의 문화를 만들레처럼 퍼트리는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주님, 오늘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의 마음 안에 당신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내려주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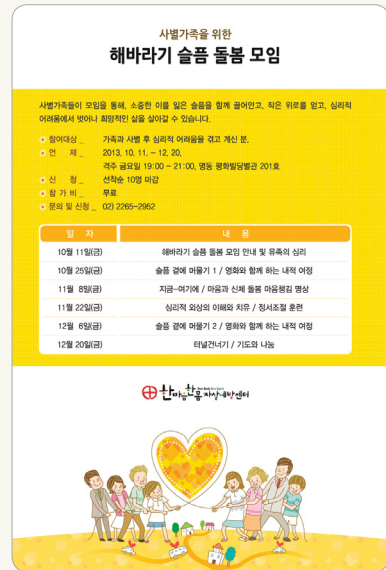
손애경 마리잔느 수녀가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장을 맡고부터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출근길 기도다. 언제나 그렇다. 평온한 사무실 정적을 깨고 “저 이제 죽을거예요.”라는 절망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수녀님과 센터의 직원들은 초긴장 상태가 된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생명의 끈을 가느다란 전화선에 붙들고 있는 누군가의 목소리는 언제나 가슴을 벌렁벌렁하게 한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그를 어둠에서 벗어나 다시 삶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수녀님과 센터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누군가 목숨을 버리려는 순간을 삶의 길로 향하게 하는 기적 같은 순간은 매번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자살로 가는 외로움과 고독에서, 삶으로 가는 관심과 돌봄으로

2013년 3월, 문을 연 천주교 내 유일한 자살 예방 기관인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는 자살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다. 센터의 임무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속적인 상담과 대화를 통해 누구든 마음의 문을 열고 꺼내놓기 힘든 속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센터의 상담심리사와 교육받은 봉사자들은 한 달 평균 150건의 전화 상담, 10건 이상의 사이버 상담, 면접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만 무려 2,400여 명의 사람들을 자살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 자살예방교육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분기별로 모집하는 센터의 게이트키퍼 교육 역시 이러한 활동의 일환이다.

센터장인 손애경 마리잔느 수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려는 이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살은 심리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본다고 이야기한다. 즉, 자살을 개인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살의 실상은 개인 내면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무관심, 이기심, 물질 만능주의 등의 분위기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주는 가정의 해체 등으로 인해 철처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고통과 절망의 현실에서 자살이라는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이 많은 경우를 차지한다. 때문에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자살’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는 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살은 생과 사, 실존의 문제이고, 얼마든지 인간의 사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의 문제이죠. ‘자살’의 이면은 ‘살고 싶다는 외침’입니다. 우리들은 절망 속에서 홀로 남겨졌다고 느끼는 누군가에게 공감하며 자살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사별 가족을 위한 모임



▲ 중년남성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코스트”

소통의 물꼬를 트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자살을 선택하는 많은 이유가 외로움과 고독 때문이기도 하지만, 옆에 누군가가 있음에도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2013년,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는 중년 남성들의 자살 통계를 접하면서 서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가족 안에서의 소통의 부재에 주목하였다. 그렇게 시작한 ‘아빠 사랑해요’ 캠페인은 중년 남성들을 위해 가족 간의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구성원 간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만 있지 방법을 찾기 힘들 때, ‘아빠 사랑 액자’, ‘아빠 사랑 편지쓰기’를 통해 중년남성, 우리시대의 아빠에게 사랑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입으로만 ‘소통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넘어 실질적이고 몸을 움직이는 실천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자칫 무겁게 가기 쉬운 기존의 자살예방프로그램을 뛰어넘어 일상 속에서 편하게 자살예방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물들이에요. 작은 것부터 쉽게 직접 몸으로 움직여야 감정적 스किन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센터가 제작한 ‘마법의 쿠폰’ 역시 그러한 도구 중 하나다. 가족이나 친구가 힘들어 보일 때 ‘무조건 사랑한다 말하기’, ‘무조건 용서하기’ 등이 새겨진 작은 쿠폰을 선물해 누군가 항상 옆에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센터는 자살로 가족을 잃은 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모임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별가족을 위한 해바라기 슬픔 돌봄 모임’에서는 자살유가족과 사별가족들이 심리적 외상 치유와 마음 돌아보기,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통해 소중한 이를 잃은 슬픔을 함께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반응은 뜨겁다.

센터의 노력은 지역과 국내에 한정되어있지 않다. 2013년 가을에는 ‘한·일 자살예방사업의 현황과 교회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일본 카리타스와 함께 심포지엄을 열어 자살예방 문화 확산을 양국이 협력할 것을 협약했다. 또한 한국가톨릭자살예방협회를 발족해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하기도 했다. 2013년 성탄에는 ‘아빠 사랑 캠페인’의 발자취가 담긴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어 커다란 호응을 얻기도 했다.



▲ 본당 자살예방 릴레이 캠페인



▲ 자살예방 전문가 교육

더 커다란 도움의 손길을 위하여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에는 긴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112나 119가 있듯 상담전화 1599-3079(생명친구)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돕는데 주력했다.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순간에 ‘마지막 도움의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곳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 힘써 온 것이다.

“센터가 개소된지 4주년이 된 올해에는 조사사업을 시작 할 계획입니다. 자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접근방법을 찾아 어떤 활동이 자살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가톨릭 교회의 정신이 담긴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만의 교육 매뉴얼을 만들 예정입니다.”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살리려는 취지에서는 여타의 자살예방센터와 다른 것이 없을지 모른다. 그것은 센터가 특별한 것을 만들려 하기 보다는 교회의 기본 정신인 ‘생명사랑’과 ‘인간존중’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센터가 지향하는 처음과 끝이죠. 고통 받는 이들, 아프고 소외된 이들의 마음에 공감하며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마음을 다독이는 것.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 생명의 문화가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가 할 일입니다.”

“내가 들이쉬고 내쉬는 숨이 하느님의 숨결임을 의식한다면 나 자신과 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길가에 핀 이름 없는 꽃 한 송이도 생명을 이어가며 당신에게 말을 건네고 있어요.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당신 곁에 우리가 있어요.”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가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다. ☎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의 마음달력 캠페인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소통의 시작

우리 안에는 다양한 감정이 있다.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와 같이 알아차리기 쉬운 감정 외에도 '만족스러운, 부러운, 거부적인, 낙담한'과 같은 평소 세심하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느낌도 있다. 모두 다 소중한 우리의 감정들이다. 자신의 마음이 하는 소리를 듣고 스스로 공감할 때 비로소 타인의 감정과도 소통이 가능하다. 우리들은 보통 행복한지, 슬픈지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 뿐만 아니라 누가 옆에서 아프고 힘들어 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제 하루하루 자신의 감정을 달력에 적어보며 감정을 읽어주는 연습을 시작 해보자.



마음달력을 쓰면

카톨릭 신문 연중기획 '행복해져라'를 연재하며 이벤트를 통해 공모된 수기들



임○○

결혼 3년차, 세 살배기 아이를 둔 바쁜 직장 맘이다. 남편과 대화가 부족해 소통이 어렵다고 느낄 즈음 마음달력을 알게 되었고, 함께 매일 저녁 감정을 달력에 적어 보았다. 처음엔 웃음도 나고 어색했지만, 단어 하나로 표현하던 것이 어느새 하루 동안 느낀 여러 감정을 서로 귀 기울여 들어줄 정도로 발전했다. 5분, 10분... 서로의 이야기를 내어놓고 들어주다보니 짜증도 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단어 선택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들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한○○

나이 많은 싱글녀인 나는 감정 기록이 큰 편이다. 신앙이 있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어쩔 수 없는 깊은 슬픔에 빠지면 다시 올라오기가 쉽지 않다. 주변 사람들이 떠오르는 감정을 보살피라고 조언해 주어, 마음달력을 통해 내 감정을 조금 떼어놓고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현재 슬퍼하고 있다고 느낄 땐 스스로를 보듬어 주려 노력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감정을 되돌아보며 꽃과 바람, 햇살, 나무향기 같은 것들이 나를 얼마나 기운 나게 하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김○○

살아오는 동안 남의 감정은 헤아리면서, 정작 나 자신의 감정이 어찌나 돌아본 적이 없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남편과 재미있어 마음달력을 시작했다. 마음달력을 적어가며 내 감정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내가 속상할 때 남편도 슬퍼했고, 내가 기쁘면 남편 역시 행복해했다. 짜증나고 속상한 날이더라도 솔직한 감정을 서로에게 털어놓았던 덕분에 나쁜 감정으로 기분이 상하는 일이 덜해지면서 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어느새 '난 괜찮아', '행복해', '사랑해' 같은 말을 많이 하게 되었다.



선○○

작년 겨울, 딸아이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며 화장, 외모에 관심을 갖고 친구관계가 전부인 사춘기로 접어들었다. 말로만 듣던 아이의 사춘기를 온 몸으로 겪으며 나는 울기도 많이 울었다. 일기도 쓰고 마음달력에 내 감정을 체크하며 동시에 딸의 감정도 살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딸과 나의 평화를 위해 마음달력을 활용하여 이제는 서로 잘 지내게 되었고, 갈등이 생겨도 현명하게 대처해 가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계기도 되었다.

Q & A

Q.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A. 똑같은 상황과 문제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사소한 일이 다른 사람에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 내게 어려움을 이야기 할 때는 내 기준으로 판단해선 안 되며,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헤아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정말로 죽고 싶어 할까?

A. 대부분 자살을 결심해도 반드시 죽겠다는 결단을 내린 상태는 아닙니다. 자살을 생각하더라도 누군가의 관심과 도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자살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Q.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A. 첫째, 자살이 의심되면 자살을 시도한다는 확신이 들지 않아도 가족과 책임 있는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둘째, 자살시도 의사를 표현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 안정을 찾을 때까지 혼자 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위험한 상황이 지나더라도 근본원인이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훈련된 자살예방전문가를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Q.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의 교육을 받으려면?

A. 센터의 게이트키퍼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분기별로 30~4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1. 위기상담전화 | 1577.0199 (24시간 운영)

2. 전화상담 | 1599.3079 (월~금, 10시~17시)

3. 면접상담 | 02.318.3079

- ① 대상 : 자살생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 ② 상담비 무료 / 개인상담의 경우 방문하여 초기면접 후 상담결정 (주 1회 50분)

자살생각과 관련해 '즉시 위기상담'이 필요하시면 위기상담전화 1577.0199(24시간 운영)를 이용해 주시고, 면접상담을 통한 지속적인 만남을 원하시면 센터 02.318.3079로 문의해 주세요.



2014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포토에세이

캄보디아에서 온 사랑, 희망, 햇살, 기쁨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단체해외봉사단원으로 2013년 캄보디아에 파견된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소속 전수빈입니다. 저는 지금 1년간 몸담고 지낸 방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반티에이 뿌리업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시사철 다양한 꽃이 만발하고, 새로운 삶을 꿈꾸며 희망을 키우는 학생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여기서 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배움의 시간이었고, 매순간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반티에이 뿌리업은 1991년 Jesuit Service Cambodia에 의해 시작된 장애인직업기술학교입니다. 현재까지 2천 명이 넘는 장애인이 센터를 졸업하였고, 2006년부터는 한국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티에이 뿌리업에서 기획 및 예산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뉴스레터 발행, 손님맞이 등 현지 선생님과 직원들의 업무가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반티에이 뿌리업이 재단 및 개인 후원자와 연결고리를 든든히 하는 일도 제가 맡은 일 중 하나였습니다.

주말에는 가보고 싶었던 근교로 짧은 여행을 가거나 프놈펜으로 나가 친구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즐거웠던 순간은 평일에 손님들을 맞이하고 업무를 처리하느라 만나지 못했던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서로의 감정과 기분을 나누며 보냈던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학생들과 캄보디아 시골마을의 정취를 느끼며 천천히 길을 걷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12월, 그간 동고동락한 학생들을 떠나보내는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1년이 지나 기술을 익히고, 자신감을 얻고 사회로

전수빈 | 2013 민간단체해외봉사단원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의 모습은 제게 크나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원래 있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도 학생들처럼 용기를 내 어려운 일이 생겨도 꺾히지 않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 머나먼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내 모습과, 반티에이 뿌리업에서 열심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떠나는 졸업생들의 뒷모습이 하나로 겹쳐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반티에이 뿌리업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곳은 20년 넘게 운영되면서 전통과 역사를 가진 탄탄한 사업장이었고, 또 2010년 시작한 KOICA와의 CSO지원사업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틀도 확립되었기 때문에 제겐 국제개발협력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학교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장애인의 삶을 체온으로 느끼며 그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학생들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한 식구처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협력사업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1년간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캄보디아에 오기 위해 잠시 중단한 학업을 이어갈 것입니다. 한국을 떠나 이곳에 왔을 때처럼, 이제는 이곳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조금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햇빛에 그을려 쪼리자국이 질게 남은 발등, 캄보디아의 미소를 닮아가는 제 얼굴, 이제야 익숙해져가는 캄보디아 말들.... 아직은 캄보디아 생활에 푹 빠져있어서 그런가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 삶에 어떤 소중한 밑거름이 될지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받은 사랑, 희망, 햇살, 기쁨을 오래오래 느끼고 싶습니다. 어디에 있든 반티에이 뿌리업에서 선물처럼 받은 이것들을 다시 누군가에게 나누는 삶을 희망해 봅니다. Ⓜ



가난했던 인생의 큰 전환점

미얀마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



우틀라 노이 (U Thla Noi, 48세)

저는 미얀마 사테 마을에 사는 우틀라 노이(U Thla Noi, 48세)입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19살 때부터 전통적 방식으로 이동식 경작을 해왔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이동식 경작만이 유일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미얀마 현지 단체인 CAD(Country Agency For Rural Development)가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작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인 계단식 농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CAD가 가르쳐 준대로 밭을 일구어 작물을 재배하였고, 그 결과 1에이커(1,224평)당 300불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계단식 농법으로 농사짓기 전에, 이 마을의 농부들은 하나의 밭에서 옥수수를 50 바구니 이상 수확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계단식 농지 정리와 더불어 관개수로 작업을 한 후, 우리 가족의 1년치 소비량보다 많은 100바구니를 수확하였습니다. 이렇게 수확이 늘어 우리가족은 집을 새로 지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2에이커의 밭을 가지고 있으며, 저의 아내를 비롯하여 4명의 아이들이 같이 살기에 넉넉한 집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더불어 저는 양배추와 양파, 가지와 꽃양배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밭에서만 1,200불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아직도 우리 마을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 CAD가 제시한 농법에 믿음이 약하지만,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CAD가 가르쳐준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CAD와 한국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게 감사드리며, 가난한 농부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을 계속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도틴치아(Daw Tin Cia, 48세)

CAD가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해준 일은, 지역의 여성들과 함께 하는 '아가페 여성 그룹'을 지원하며 여성 자력화 운동을 이끈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CAD를 통해 그룹의 비전과 미션을 설정할 수 있었고, 재정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룹의 일원 중 생활 형편이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는 가축을 지원해 주었지요. 감사하게도 2013년에는 저희 그룹에서 제가 암퇘지를 받는 행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그 돼지로 인해 수컷 세 마리, 암컷 세 마리 총 여섯 마리의 새끼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끼돼지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준 분께 다시 수컷을 돌려보내며 수수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도움을 받았듯,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수컷과 암컷 한 마리씩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저는 한 마리의 어미돼지와 세 마리의 새끼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CAD의 도움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였지만, 지금은 돼지를 키우며 가정의 꿈과 미래를 만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꿈을 나누어주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우다빗(U David, 45세)

저는 원래 이 마을 출신이 아닙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면서 아내의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지요. 이 마을에서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경작을 위한 좋은 땅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좋은 땅을 얻지 못하여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2년에 전통적인 농법에서 벗어나 CAD의 지속가능한 계단식 농법을 2에이커의 밭에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더불어 저는 CAD로부터 600불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 결과 저는 제 밭에서 60바구니의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농사를 시작한 이후로 이 정도의 양을 수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농부들이 30바구니도 수확하기 어려운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현재 저는 옥수수뿐만 아니라 가지, 양배추, 사탕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 작물들은 바로 시장에 내다 팔아도 될 정도로 상태가 좋습니다.

CAD의 지원은 가난했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고, 덕분에 우리 가족은 미래를 꿈꾸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준 CAD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모든 후원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미얀마(Myanmar) 라우투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 | 본부는 2012년부터 미얀마 현지 NGO인 CAD(Country Agency for Rural Development)와 '라우투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우투는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약점 때문에 식량문제, 보건, 영양, 질병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부는 가장 취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라우투 지역의 기초 서비스 제공, 식량 및 건강 증진, 농업기술개발,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사업 확대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룬디 희망 프로젝트

부룬디 마캄바 기에루(Giharu) 지역 초등학교 건축 사업



3,300

기에루 지역
교육을 받아야 할
전체 아동 수(명)

학교가 집에서 멀고,
수업환경이 열악할 뿐 아니라,
교실 증축을 위한 자금이 대부분
학부모로부터 조달되고 있어서
경제적 빈곤층 가정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함.



부룬디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그리고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면적 27,834km² (대한민국 경상도 크기)의 작은 나라인 부룬디는 아프리카 대 호수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20세기 초 독일 및 벨기에의 식민통치를 받다가 1962년 독립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정권을 둘러싼 후투족과 투치족의 갈등으로 끊임없는 정치적 긴장이 지속되었고, 오랜 내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2005년 평화 협정으로 내전이 종식되었지만 교육, 보건 등 사회기반시설은 여전히 매우 불안정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은 큰 타격을 받아 농업생산량마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현재는 불안한 내전의 시기가 지나 국가의 안정화에 주력하며 사회, 정치, 경제의 회복을 위해 다방면에서의 빈곤 퇴치와 주민 생계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부룬디의 가장 큰 종교로서 교육과 위생 분야의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항상 현지 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와 그들 삶의 터전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UN은 최빈국의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의 교육을 확대하는 일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의 경우, 1990년 기준 취학아동의 54%만이 초등교육을 받았던 것이 2002년에는 62%까지 교육받는 아동의 비율이 확대되었고, 북부 아프리카는 82%에서 92%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부의 지원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기에루 초등학교가 위치한 마캄바 지역은 부룬디 내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은 탄자니아 국경지대에 가깝기 때문에 내전이 벌어지는 동안 많은 주민들이 탄자니아 국경을 넘어가 난민이 되었다가, 지난 몇 년 동안 정치, 사회적 분위기가 안정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에 비해 초등학교와 위생시설 등의 기초적인 사회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설립은 마캄바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보편적인 초등교육은 아프리카의 주체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민족과 언어,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아프리카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정말 놀랍고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이 아름다운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나눔, 세 남매의 생애주기별 기부

첫째 천유정 안젤라, 둘째 천승민 베드로 다미아노, 셋째 천수정 로사

아이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선물

아이의 탄생에서부터 ‘기부’의 소중함을 몸소 실천한 아름다운 가족이 있다. 바로 천정우 바오로, 강재민 테레사 씨 가족이다. 재민 씨는 첫째 유정이가 세상에 나오기를 기다리며, 아이에게 줄 특별한 선물이 없을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후, 한마음한몸본부의 ‘생애첫기부’를 알게 되었고, 아이가 돌을 맞이하면서 돌잔치의 수익금으로 ‘생애첫기부’를 하게 되었다.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순간부터 아이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은 엄마인 재민 씨에게는 굉장한 즐거움이고 행복이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또 아이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값진 선물이 되리라 생각했다.

“막내 수정이를 뱃속에 품었을 때 양수검사에서 수정이가 기형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이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제 자신이 짊어지고 갈 앞날을 상상하면 정말 힘들었지요. 하지만 그도 하느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헤쳐 나갈 길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다행이 수정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이를 통해 재민 씨의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러한 마음에 따라 실천의 깊이도 더해갔다. 첫째 유정이와 둘째 승민이는 돌잔치를 하고 수익금을 전부 기부했고, 막내 수정이는 돌잔치도 치루지 않고 그 비용을 모두 기부했다.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아이의 건강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축복이었으며, 이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 엄마인 그녀가 아이들에게 하느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말로 설명하여 하느님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기부와 나눔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스스로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그 마음이 전달되어 도움을 받는다면, 또 그 아이들이 세상을 비출 크나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눔은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지

아직 둘째 승민이와 막내 수정이는 어려서 ‘기부’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첫째 유정이는 벌써부터 나눔의 의미를 스스로 느끼며 기부를 실천으로 옮기고 싶어 할 정도다. 어느 날 유정이는 텔레비전에서 자기보다도 작은 아이가 돌을 깨며 일하는 장면을 보고, 왜 저렇게 어린 사람이 힘든 일을 하냐고 엄마에게 질문을 던졌다. 엄마는 말했다. 너무 가난해서 저렇게라도 돈을 벌어야 하고, 어렵게 돈을 벌지만 물밖에 사 먹을 수 없다고 알려주었다. 그랬더니 유정이는 물을 보내주고 싶다고 했다. 엄마는 또 설명했다. 물을 바로 보내주기는 힘드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러자 유정이는 그 날부터 동전을 모으기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나눔을 실천해온 덕이다. 때로는 “엄마,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기도 한다. 얼마 전부터는 다른 단체에 유정이 이름으로 후원도 하고 있다.

“나눔을 실천하는 일은 자기 자신이 건강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삶이 너무나 어렵고 지친다면 무슨 힘으로 타인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도 기부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고, 또 남의 삶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아이들 인생에서 기부란 선택이 아닌 아름다운 의무가 될 수 있겠죠. 기부를 하는 사람들 역시 누군가의 나눔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재민 씨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까지는 아이들의 생일과 명명축일에 아이들 이름으로 기부를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땐 스스로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유정이는 아빠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런 딸을 보면서 재민 씨는 온가족이 함께 의료봉사로 나눔을 이어가는 꿈을 꾀다. ㊦



황금부동산, 유진감자탕

INTERVIEW | 나눔가게·나눔기업



129호점 황금부동산

열정적인 나눔가게 홍보대사 129호 황금부동산 최창환 펠릭스님을 소개합니다.

최창환님은 개봉동성당 교우로 현재 브레시디움 단장과 부구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봉동지역의 터줏대감입니다. 1990년 즈음 '한마음한몸운동교육'을 받으시고 활동이 뜸하였지만, 작년 새 교황님이 나오면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해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평화방송에서 우연히 본부의 '나눔가게'를 알게 되었고, 지난해 3월부터 황금부동산을 나눔가게로 등록하여 나눔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업에 종사하는 특성을 살려 주위의 여러 가게들에게도 나눔가게와 나눔기업을 적극 홍보하는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덕분에 지난 1년간 개봉동 일대 16곳 가게가 '나눔가게'로 등록했으며, 오늘도 최창환님은 이들이 나눔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그가 운영하는 황금부동산이라는 이름처럼 나눔의 황금알을 낳고 있는 그의 가게 덕분에 오늘도 세상에 따스한 기운이 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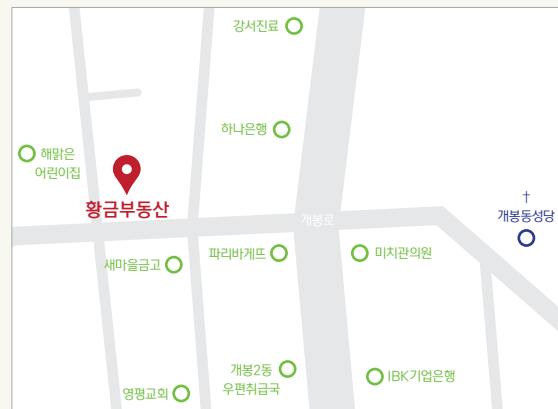
나눔가게·나눔기업 | 황금부동산

대표 | 최창환 펠릭스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8시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17길 18(개봉동)

전화 | 02.2617.8899



문의 | 02.727.2263

나눔가게·나눔기업은 본부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펼치는 특별 기부 사업에 동참하는 사업장입니다. 본부에 예비 나눔가게·기업으로 등록한 뒤 1년 이상 정기적으로 후원하거나 연간 1,000만 원 이상 기부한 사업장은 나눔가게·기업으로 선정됩니다. 나눔가게·기업으로 선정되면 벽에 부착할 수 있는 나눔가게·기업 현판을 보내드리고 정기적으로 모아주신 기부금은 지구촌 빈곤 퇴치와 긴급 구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와 자살 예방 사업 지원 등 본부의 다양한 생명·나눔 운동에 지원됩니다.

136호점 유진감자탕

나눔가게 136호점은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유진감자탕입니다. 따뜻한 나눔가게 유진감자탕을 이끌고 계시는 김정례 올리안나님을 소개합니다.

국내산 돼지 뼈만을 엄선하여 조리한 음식을 손님들에게 내놓아 신뢰를 쌓고 있는 유진 감자탕은 30년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가게입니다. 이곳의 김정례 올리안나 사장님은 작년에 서울 주보에 끼워져 있던 '한마음한몸' 소식지를 통해 나눔가게·나눔기업 활동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던 올리안나님은 '나눔가게'의 의미를 알게 된 순간 동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가게 운영이 그리 쉬운 편은 아니지만 나눌 수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한 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눔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는 사장님.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 만드신 감자탕을 먹으면 몸도 마음도 든든히 채워질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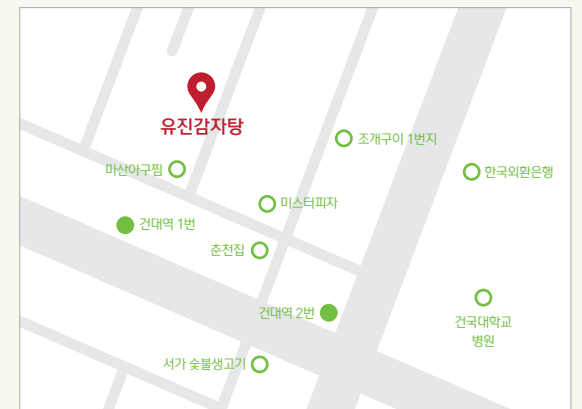
나눔가게·나눔기업 | 유진감자탕

대표 | 김정례 올리안나

운영시간 | 24시간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1길 9-1 (화양동) 1층

전화 | 02.462.4220





생애첫기부 & 기념일기부

2014년도 여름호

고은혜 아기

생애첫기부	
강다연	2013.03.16생 父 강방현 母 윤지현
강재원 레이첼	2013.05.29생 父 강동희 母 황예림
강현우 다니엘	2011.11.03생 父 강남규 母 홍유진
고명준 베네딕토	2013.03.11생 父 고일민 母 장유영
고서연	2009.08.18생 父 고동신 母 김현미
고수아 요안나	2011.03.17생 父 고일민 母 장유영
권승오	2013.12.08생 父 권영우 母 김지현
권오현 레오	2004.10.13생 父 권진호 母 백미애
기정훈 그레고리오	2010.01.02생 父 기석권 母 박주원
길다인 까리타스	2007.02.05생 父 길준일 母 강현지
김가별	2014.03.28생 父 김현수 母 김수진
김동욱	2013.03.02생 父 김봉재 母 장은경
김동하	2013.04.13생 父 김재영 母 유하나
김동하 요한	1995.11.03생 父 김홍근 母 백지혜
김리원	2012.02.15생 父 김영진 母 이은경
김범준	2014.02.12생 父 김준형 母 문보현
김보나	2013.04.19생 父 김홍근 母 김희옥
마리임마누엘라	2013.04.19생 父 김홍근 母 김희옥
김서영 글라라	2004.04.27생 父 김창진 母 권은미
김서울	2013.04.03생 父 김선재 母 최현정
김설하	2013.05.14생 父 김수성 母 김진영
김세민	2005.09.20생 父 김준현 母 노자영
대건안드레아	2013.03.05생 父 김명원 母 권수진
김소민	2012.12.31생 父 김두성 母 이수현

김수현	2014.02.14생 父 김지웅 母 전연희
김시은	2013.05.08생 父 김 윤 母 강재희
김용준	2013.12.05생 父 김가목 母 이지현
김은수	2013.03.17생 父 김진범 母 박경현
김은우 다니엘라	2013.03.14생 父 김준우 母 소유진
김주원 프란치스코	2013.03.30생 父 김동은 母 오지정
김지율	2013.05.14생 父 김수성 母 김진영
김지환 필립보	2013.04.03생 父 김윤철 母 이길현
남궁재윤 보나	2013.04.25생 父 남궁필 母 김혜진
문서준	2013.12.08생 父 문희식 母 남희영
문윤재 베드로	2005.07.18생 父 문재일 母 노혜정
문지호 요셉	2013.03.26생 父 문홍표 母 조효숙
문혜성 스텔라	2007.11.07생 父 문재일 母 노혜정
박다은 안드레아	2013.11.29생 父 박기덕 母 오성희
박서연 마리스텔라	2013.03.20생 父 박주호 母 정미옥
박서현 요셉파나	2013.03.18생 父 박요안 母 최영은
박소윤	2013.02.02생 父 박은철 母 이윤실
박소율	2011.09.21생 父 박선주 母 유아림
박솔희 비오	2013.03.07생 父 박주환 母 이강림
박유진 요셉	2014.03.06생 父 박재홍 母 임조희
박재우 모세	2013.04.13생 父 박성훈 母 최성희
박재윤 레오폴도	2013.04.02생 父 박준웅 母 김세정
박정현 젤뚜르다	2014.01.20생 父 박진홍 母 이소현
박채빈 헬레나	2013.05.22생 父 박동영 母 신현주
박하윤 일루미나	2013.03.08생 父 박찬익 母 하영재
백재현	2013.03.25생 父 백승훈 母 왕문영

송리나 마리아	2014.02.11생 父 송예완 母 한유리
송비오 비오	2013.05.10생 父 송필영 母 전세연
송지용	2013.03.24생 父 송경환 母 송장지
심세원 안드레아	2012.06.19생 父 심재운 母 이근정
심우형 다니엘	2009.05.15생 父 심재운 母 이근정
안서빈	2013.04.05생 父 안추진 母 맹지영
안승우	2013.04.14생 父 안도현 母 김보영
양명지 카타리나	2013.04.26생 父 양주현 母 조인애
양시원 레오	2014.01.19생 父 양승훈 母 한윤정
엄지율 아네스	2013.05.29생 父 엄용섭 母 안승연
연서희	2012.04.05생 母 김민혜
오예은 글라라	2004.09.10생 父 오병이 母 김현정
오은유 사도요한	2013.04.29생 父 오형동 母 김지원
오윤아 율리아	2004.12.30생 父 오민석 母 최병희
오윤지 글라라	2009.02.01생 父 오민석 母 최병희
오윤찬	2013.03.13생 父 오지석 母 김진영
오지는 레지나	2008.09.07생 父 오병이 母 김현정
우서진	2013.04.05생 父 우기철 母 김형진
유지율 아네스	2013.04.30생 父 유 호 母 김민아
윤은재 카이라	2013.03.11생 父 윤지훈 母 이려진
윤은재 비비아나	2011.10.08생 父 윤상필 母 장 미
윤진우 라파엘	2013.05.28생 父 윤승배 母 최문형
이건우 바오로	2013.04.23생 父 이국형 母 남정아
이다니엘	2013.11.18생 父 이종섭 母 이해령
이문정	2007.05.24생 父 이준수 母 이상은
이민성	2013.11.30생 父 이대희 母 방지연

이서윤	2013.05.02생 父 이태현 母 고효정
이서준	2013.05.06생 父 이형규 母 김아란
이서준	2014.02.05생 父 이광윤 母 이미연
이서하 힐데가르트 폰 빙엔	2013.04.05생 父 이준영 母 조아리
이소명	2014.01.31생 父 이준한 母 이푸른
이소민	2013.04.26생 父 이우재 母 최윤미
이소율	2013.05.09생 父 이성문 母 강은영
이시우	2013.09.29생 父 이동선 母 황서연
이시은	2013.04.20생 父 이인호 母 신경진
이시환	2014.01.16생 父 이민규 母 임가연
이에담	2013.05.15생 父 이승철 母 이은정
이에빈 로즈마리	2013.05.16생 父 이승훈 母 서민정
이에서 로셀리나	2013.01.27생 父 이종규 母 유소연
이윤지	2012.03.31생 父 이종화 母 이민아
이윤지	2013.02.22생 父 이윤출 母 박경희
이종윤 프란치스코	2013.03.18생 父 이규호 母 전재은
이지후	2011.04.12생 父 이우재 母 최윤미
이진아	2013.03.05생 父 이상우 母 유영진
이채빈 라파엘라	2014.01.31생 父 이 웅 母 박선화
이채원 에스텔	2014.02.17생 父 이진호 母 정희경
이해랑	2013.06.16생 父 이한성 母 한 나
임해율 라파엘	2013.04.14생 父 임덕호 母 손여진
장재연	2013.04.23생 父 장주현 母 최문정
장지훈	2013.03.21생 父 장현석 母 정효빈
정민경	2013.05.02생 父 정종훈 母 이나영
정민주 엘리사벳	2009.06.01생 父 정태훈 母 박익명
정세연	2013.06.12생 父 정병관 母 김영선
정연서 릴리안	2013.12.06생 父 정덕화 母 이은진
정예찬 미카엘	2011.11.01생 父 정상현 母 송현진
정우혁	2013.02.27생 父 정성용 母 백수정
정이현	2013.11.25생 父 정진석 母 이인화
정준성 사도요한	2013.04.08생 父 정기연 母 하정은
정하준 미카엘	2013.04.10생 父 정용욱 母 안명은
정혜인	2013.05.28생 父 정태훈 母 정현선
제유경 소피아	2013.04.19생 父 제현국 母 김순이
조서아	2004.01.05생 父 조형준 母 권다미
조예서	2013.04.22생 父 조광재 母 김미선
조예지 비아	2012.02.01생 父 조형규 母 오현정
조용준	2013.01.03생 父 조원학 母 장미라
조윤우 닐트	2013.03.08생 父 조현열 母 이진아
조하진	2014.01.29생 父 조형규 母 오현정
지영우	2007.02.19생 父 지광문 母 정희송
진수영	2013.02.21생 父 진성화 母 이윤진
진여운	2013.04.06생 父 진동섭 母 문아미
최민혁 루이	2013.05.10생 父 최대봉 母 정민숙
최설리	2012.05.11생 父 최지수 母 권애린
최윤	2013.03.13생 父 최지완 母 김희원

최지인	2014.01.30생 父 최일명 母 박경진
최지훈	2008.04.19생 父 최재석 母 김성실
최태현 토마스 아퀴나스	2013.01.28생 父 최규휘 母 이리타
최해인	2014.01.30생 父 최일명 母 박경진
케이브로렌 새봄 패트리샤	2013.05.21생 父 아담케이브 母 손수정
한상준 루도비코	2013.04.11생 父 한현수 母 김유진
한석현 알렉산데르	2013.08.11생 父 한현선 母 서가원
한성욱	2013.12.22생 父 한승훈 母 김민경
한솔 윌리엄	2013.03.20생 父 한동수 母 석보경
한정현 대건 안드레아	2011.08.20생 父 한현선 母 서가원
허윤 소샤데레사	2008.05.19생 父 허준수 母 허지영
허을 최영이 바르바라	2013.05.14생 父 허준수 母 허지영
홍아인 로즈마리	2013.05.06생 父 홍 현 母 김진희
황리나 안젤리나	2012.09.02생 父 황선용 母 이정진
황민아	2013.04.30생 父 황인환 母 이연화
황예담	2011.08.08생 父 황지환 母 조연주
황에서	2013.12.19생 父 황지환 母 조연주
황윤아	2010.12.08생 父 황인환 母 이연화
황주원 베드로 다미아노	2013.04.20생 父 황재선 母 김주리
두번째 기부	
곽여은	2012.03.31생 父 곽동수 母 김혜진
김나윤 마리스텔라	2012.05.23생 父 김동진 母 황수현
김다하 이레네	2012.04.27생 父 김경수 母 박선용
김민하	2011.05.09생 父 김홍곤 母 백지혜
김보민 보나	2012.05.03생 父 김태현 母 박정미
김아윤	2012.04.26생 父 김우상 母 강영지
김준서 라파엘	2012.02.18생 父 김종문 母 정희정
김준서 세례자요한	2010.05.24생 父 김영석 母 윤배정
김지희 글라라	2012.02.15생 父 김익균 母 김지영
김효주 아네스	2002.04.29생 父 김요한 母 이현화
박다인 엠마	2013.04.10생 父 박철수 母 조근혜
박설아	2012.04.24생 父 박세현 母 손은진
박소율 요안나	2012.03.26생 父 박광진 母 박봉정
박시우 요셉	2012.04.10생 父 박정호 母 임미혜
박지율	2012.03.06생 父 박형석 母 임경화
서지민 세실리아	2011.11.23생 父 서호균 母 홍승희
신희성 파트리시오	2012.03.17생 父 신윤수 母 이윤정
오윤우 안드레아	2009.06.07생 父 오세훈 母 송지혜
오윤진	2012.04.14생 父 오항석 母 이은희
오하경 카타리나	2012.05.03생 父 오택문 母 은현정
유승주 사도요한	2012.03.18생 父 유수영 母 정은율
이승원	2014.05.11생 父 이경민 母 안효연
이지우 안젤라	2011.12.29생 父 이정렬 母 진선희

이지후	2012.01.31생 父 이준수 母 김혜진
이한결 리노	2012.05.29생 父 이소학 母 김윤경
이해인	2013.12.04생 父 이진호 母 조갑희
임지호 발렌티노	2008.02.13생 父 임성익 母 김미리
정하윤 로사	2012.05.05생 父 정연준 母 좌상민
정하율	2012.10.15생 父 정 훈 母 최민영
조서윤 그라시아	2012.03.20생 父 조재범 母 도해리
조은우	2012.03.04생 父 조윤형 母 최나미
최다인 로사	2010.03.06생 父 최상규 母 이승은
최윤호 아교보	2013.05.13생 父 최영준 母 문송희
홍상현	2013.05.26생 父 홍재준 母 정지영
세번째 기부	
강서윤 스콜라스티카	2004.06.25생 父 강승렬 母 문희선
강서진 요안나	1994.04.29생 父 강승렬 母 문희선
권경현 안드레아	2011.04.19생 父 권오준 母 임민정
김리에 율리아	2011.05.23생 父 김선준 母 장진영
김예은 가타리나	2012.04.28생 父 김남호 母 오해순
송준섭 사무엘	2011.04.15생 父 송인재 母 이진아
신서준 요셉	2011.06.02생 父 신민석 母 조수현
신지윤 켈마	2007.07.31생 父 신상호 母 정연주
장수아	2011.06.01생 父 장진성 母 이정화
정성하 요셉	2011.03.09생 父 정용운 母 김애리
정수아	2011.04.29생 父 정대훈 母 김은선
천수정 로사	2013.04.06생 父 천정우 母 강재민
네번째 기부	
고영훈 요한	2013.04.13생 父 고윤석 母 성민정
김도겸 스테파노	2003.01.03생 父 김영현 母 나귀연
김태겸 가브리엘	2007.02.25생 父 김영현 母 나귀연
황지윤 아네스	2010.03.05생 父 황상욱 母 김현수
입학 축하 기부	
조은수 노엘	2007.09.26생 父 조현열 母 이진아
아름다운 부부의 기부	
김우열 요셉, 채지형 요셉파나	결혼기념일 2014.04.12
나민구 베드로, 김은경 그라시아	결혼기념일 1994.03.12
남현욱 도미니코, 오유미 보나	결혼기념일 2012.05.19
박종필 미카엘, 이연희 아네스	결혼기념일 2013.03.01
이찬희 바오로, 채윤정 루시아	결혼기념일 2013.05.11
한동수 가브리엘, 석보경 카롤리나	결혼기념일 2012.04.28
스승의날 기념 기부	
대현어린이집 선생님 일동	정수아 가족



© OBOS

세월호 참사 애도와 함께 하는 성모의 밤

지난 5월 19일(월) 저녁 명동대성당 성모동산에서 ‘세월호 참사 애도와 함께하는 성모의 밤’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4월 23일(수)부터 시작된 ‘세월호 참사로 인해 고통 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9일 기도’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모아진 기도와 메시지들을 봉헌하고 성모님의 특별한 위로를 청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OBOS

띠앗누리 18기 선발 및 활동 시작

본부의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인 ‘띠앗누리 18기’가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띠앗누리 18기 단원들은 5월 31일(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이후 4차례의 배움터, 현지 활동, 국내체험 활동 및 해단식을 통해 진정한 ‘지구시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선발된 단원은 오는 7월 7일(월)~21일(월), 14박15일 동안 네팔 포카라 올드버스파크로 파견됩니다.



© OBOS

생명존중·자살예방 릴레이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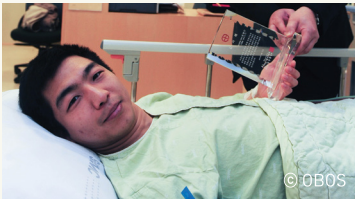
교회 내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앞장서는 본당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마장동성당(주임 이상철 신부, 3월 27일~30일), 신림성모성당(주임 한재식 신부, 5월 10일~11일), 신대방동성당(주임 송경섭 신부, 5월 18일~25일), 홍제동성당(주임 김용봉 신부, 5월 31일~6월 1일)에서 생명존중·자살예방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본당 주임신부님과 신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OBOS

지구시민교육

본부는 서울 예술고등학교(3월 21일(금), 4월 4일(금))와 경수중학교(5월 27일(화), 6월 10일(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구시민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빈곤, 인권과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OBOS

300번째 조혈모세포 기증자 탄생

지난 2010년 가천대학교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 때 기증희망자로 등록했던 조영인(29)씨가 300번째 조혈모세포 기증자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OBOS

2014 생명대행진

지난 4월 13일(일) 청계광장에서 ‘여성과 태아 모두의 생명 수호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진행된 2014 생명대행진에 본부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4. 4 ~ 6

환우지원 현황

단위: 만 원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환우명	진단명	치료병원	지원금
울○○(여)	라센중후군	의정부성모병원	1,000
장○○(남)	유잉육종	국립암센터	900
박○○(여)	당원병(간이식)	서울대학교병원	900
윤○○(남)	급성호흡곤란중후군(폐이식)	서울대학교병원	900
신○○(남)	말기신장병(신장이식)	서울성모병원	800
김○○(남)	상재불명의 심장정지	중앙대학교병원	700
이○○(남)	간암	국립암센터	300
길○○(남)	뇌교부 경색증	부천성모병원	700

환우명	진단명	치료병원	지원금
이○○(남)	다초점백질뇌병증	맑은수병원	600
란○○(남)	좌측 대뇌영역 뇌경색	목포한국병원	900
서○○(남)	골육종	국립암센터	500
김○○(여)	성인발병 스틸병	경희의료원	900
황○○(남)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서울대학교병원	1,000
이○○(남)	간경화(간이식)	고대안암병원	900
김○○(여)	림프관 확장증(소장이식)	서울성모병원	900
문○○(여)	갑상선유두암	국립암센터	500

※ 백혈병·난치병으로 고통 받거나, 장기이식수술을 기다리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해 본부로 치료비 지원요청을 하시면 내부 심의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희망의 씨앗 심기
생명나눔
제가 하겠습니다

붙일하는 곳

KONOS

등록번호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서

나는 이웃에게 새 생명을 주고자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장기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이름 _____ 세례명 _____ 본당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주소 _____ * 장기기증 등록증 발송을 위해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_____ 이동전화 _____

정보수신여부 ☐ 전자우편 ☐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 우편물 ☐ 이메일

기증형태 ☐ 뇌사 시 장기등 기증 ☐ 안구(각막) 기증 * 중복 선택 가능

운전면허증에 장기등기증희망자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를 원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 15조 제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7조에 따라 한마음눔장기기증센터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이름 _____ *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법정대리인의 동의 | 이름 _____ (서명) 관계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① 신청인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신청인이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1부

하루 100원 모으기 자동이체 출금동의서

□ □ □ □ □ □ □ - □ □

이름 _____ 세례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주소 _____

후원금액 ☐ 3,000원 ☐ 10,000원 ☐ 30,000원 ☐ 기타 _____ 원

출금일자 ☐ 매월 5일 ☐ 매월 20일 * 출금통장에 ‘한마음눔’이라 표시되며, 매달 약정일에 자동 출금됩니다. 연말 소득용 납입영수증 발급됩니다.

금융기관명 _____ 계좌번호 _____

계좌주명 _____ 계좌주 주민등록번호 _____

계좌주 _____ * 통장의 인감(서명)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명) *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② 수집항목: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셔야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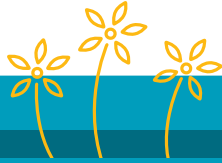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장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상기 거래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약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이름 _____ *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붙일하는 곳

소중한 100원, 큰 나눔의 씨앗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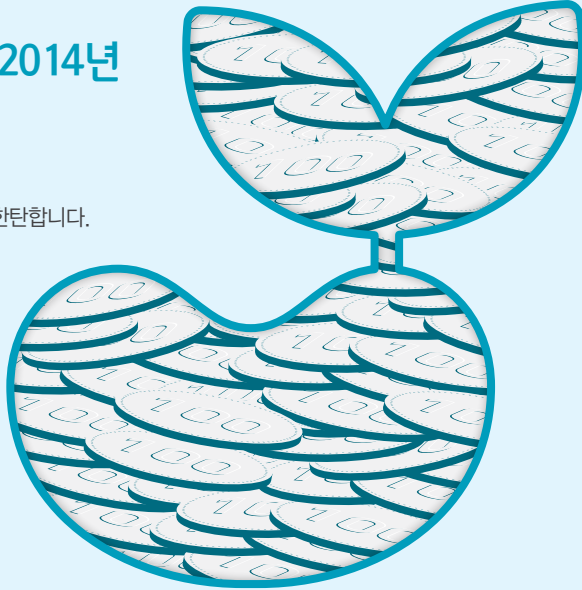
하루 100원 모으기 운동 | 100원이라는 작은 씨앗으로 사랑과 나눔이라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I DO! 제가 하겠습니다.

One-Body One-Spirit MAGAZINE / vol. 22 / summer / www.obos.or.kr

‘행복·희망의 씨앗’을 심는 2014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고,
살기 힘들어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꿈꿀 수 있냐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나눔을 실천하며 다른 이들에게
‘행복·희망의 씨앗’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희망의씨앗



행복의씨앗

우편엽서

보내는사람

 -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13호
T 02.774.3488 F 02.776.7879 H www.obos.or.kr